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30분 7시
오전 (2부) 7시30분 10시
오전 (3부) 10시 12시
오전 (4부) 12시 2시
금요일전 (1부) 1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주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예수중심교회

2013년 4월 14일 (제685호)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10시
오전 (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 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월요일 예배 취소 및 인터넷 생방송)



동 우 칼 렘

큰뜻은 멀리 봐야 한다

나를 찾아온 가난한 친구가 있었다. 나는 창 너머 산을 가리키며 그에게 “여보게, 저 산을 옮겨볼까?” 했더니, 그 친구는 “에이, 이 사람아! 저 큰 산을 어떻게 옮긴단 말이야? 자네는 어려서부터 꼭 이상한 소리만 했어.”라고 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아, 내가 옮기다가 못 옮기면 내 자식이 옮기면 되고, 내 자식이 못 옮기면 내 손자들이 하고, 내 손자들도 못하면 증손자들이 하면 되잖아.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말이 있네. 어리석어 보여도 묵묵히 일하는 자가 산을 옮긴다는 뜻이야. 나를 보게.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28년 전에 한 사람을 놓고 광명사에서 묵회를 시작했네. 그리고 계속 노력했더니 오늘의 예수중심교회가 되었지. 우리 교회는 전국 각 시, 도, 읍, 면까지, 나아가 전 세계 70여 개국에 세워졌지. 그 뿐만 아니라 각국에 땅끝에 수전도단의 회원들이 있단네. 내가 예수중심세계화나 되기운동을 한다고 얘기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나는 결국 이뤘네. 여보게, 농부의 수확의 법칙은 진리야. 논밭 갈고 씨 뿌리고 거름 주고 소독하면 반드시 100 배를 거둬서 창고가 차고 넘치는 거야네도 알지 않나. 남이 볼 때는 미련한 자 같으나 노력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네. 어린 아이가 어른이 되고, 작은 나무가 큰 나무가 되어 산사태를 막아주듯, 무슨 일이든 쉬지 않고 계속 하면 큰일을 이룰 수 있단다.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자도 꾸준히 노력하면 박사도 될 수 있는 거라네. 자네가 가난의 대를 여기서 끊으려면 자네부터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하게. 분수팔자타령 그만하고 시작해봐. 자네 가운데 영광을 맛볼 날이 반드시 올 걸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단다. 알겠나?” 나는 이 말을 당신도 가슴에 두길 바란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필리핀(Philippines) 바기오(Baguio) 집회 후, 마닐라(Manila)와 세부(Cebu)의 지교회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급거 귀국한 목사님은 지난 월요일, 서울, 인천 및 경기 일원의 교역자들을 인천 교회로 소집하고, 다음 주 15, 16일 이틀간, 부천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될 부천집회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셨다.

“내가 오늘 여러분을 급히 소집한 것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서울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을 채웠고, 올림픽공원의 역도,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집회 첫날 바닥조차 채우지 못하는 참담한 결과를 맞아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Ukraine) 오데사(Odessa)에 갔을 때도 동일한 경험을 했고, 멕시코(Mexico) 비에야르모사(Villehamosa)에 갔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이번 필리핀 바기오(Baguio) 집회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패착은 이 초석 목사님만 모시면 당연히 차고 넘칠 거란 안일한 생각이었습니다. 이 초석 목사만 온다고 광고하면 사람들이 몰려올 거란 생각은 넌센스입니다. 내가 마닐라

육관을 채울 뿐 아니라 차고 넘치는 부천 집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사다.

나는 번민과 번뇌 속에 부천집회를 위해 일찍 귀국하였고, 오늘 여러분을 독려한 다기보다 부탁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디 이번 부천집회에 최선을 다하여 누가복음 22장 28절 이하의 말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



서울, 인천 및 경기 일원의 교역자 세미나(2013. 4. 8 인천예수중심교회)

펜싱, 체조경기장, 또한 전국 체육관을 채우며 복음을 전하는 한국 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큰 획을 그어왔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2000년 이후 전 세계의 체육관과 운동장을 채우며 진행된 해외집회들에서도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대역사를 일으켜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경험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집회들을 위해 우리가 피땀흘리며 기도하고 전도한 나날들은 기억하지 않고, 단지 이 초석 목사만 단체에 세우면 그 전이 차고 넘친다는 타성에 빠져선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아르헨티나(Argentina)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에서 최대교회를 이끌고 있다는 카니발(Carnival) 목사의 초청을 받아 갔을 때, 카니발 목사는 1만 명이 들어가는 체육관을 빌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교인들만 와도 집회장이 차고 넘칠 거란 생각에

와 세부 지교회 순방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귀국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부천체육관 집회는 이미 몇 번 해보았고, 그 때마다 차고 넘쳤으니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란 생각, 서울, 인천 교인만 와도 차고 넘칠 거란 생각에 여러분들이 뛰지 않고 손 놓고 있다가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도자가 뛰지 않으면 아랫사람들은 결코 뛰지 않습니다. 기도했다고, 광고했다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씩 데려오라 결심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독려할 뿐 아니라 나부터 그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축객 없는 결혼식장을 생각해 보세요. 자리가 텅 빈다면 초청자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번 집회에 자리가 빈다면 초청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전도하여 부천 체

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눅22:28-30)’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합시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며 일약 가나안의 영웅으로 떠오른 여호수아는, 그러나 작은 아이성을 우습게 보았다가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지극히 작은 일인 큰일이든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철저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거가 그러했다고 오늘도 그러할 수는 없다.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하는데도 온 사력을 다하는 사자처럼, 우리 모두는 이번 부천집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목사님이 번민과 번뇌 속에 급거 귀국하여 수도권의 교역자들을 소집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이번 부천체육관 집회에 많은 영혼을 전도하여 차고 넘치는 귀하고 복된 집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자.

2013 젊은이를 위한 비전 세미나 “삶의 지혜가 여기있다. 핑계대지 말고 방법을 찾자.”

●강사: 이초석 목사 ●시간: 매주 수요일 밤 7:30 ●장소: 엘루체웨딩컨벤션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 3번출구 방향) ●대상: 젊은이라면 누구나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빌2:1~4)

부모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빌2:1-4).

7월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청년·대학부 수련회, 그리고 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이어집니다. 그 때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정말 저는 마음이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교사 및 봉사자들이 자기 소속 수련회 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속 수련회까지 참여하여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기 팀 수련회를 준비하고 치르는 것만도 쉽지 않습니다. 몇 달 전부터 기도하고, 또 준비하느라 며칠씩 밤을 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기간 동안은 참가자들을 살펴야하기 때문에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다고 합니다. 그러니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완전히 녹초가 되겠지요. 그런데도 바로 이어지는 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에 가보면 그들 대부분이 와서 어린 아이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봉사자가 하도 많아서 아이 반, 봉사자 반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쁘는데, 형제의 일까지 그토록 열심히 하니 너무나 기쁩니다. 저도 이렇게 기쁘게 하나

고, 또 전날에 다 모여 음식도 만들고, 이것저것 서로 협력한다면, 부모님은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선물을 받아서가 아니라 형제가 연합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또는 멀다고 오지도 않은 자식이 있다면 부모님 마음 한편이 비지 않겠습니까? 손자 손녀까지 다 와야 기쁘지요. 본시 잔칫집은 북적북적해야 좋거든요.

여호수아 1장 10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지휘관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진영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각자의 양식을 준비하라 하고 해라. 이

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자들이 여호수아의 말대로 다른 지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부천체육관 집회는 우리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러니 인천교회뿐 아니라 서울교회, 그리고 경기일원 모든 교회, 더 나아가서는 교단의 모든 교회가 협력하고 동참해야 합니다.

또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백성에게 공포합니다. 이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성벽 쌓기에 힘씁니다.

그러나 산발랏과 도비야 같은 훼방자도 있었습니
다. 그
들은
조



제부터 3일 안에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너희 아내들과 너희 어린아이들과 너희 가족들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강 건너편 땅에 머물러 있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한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실 때까지,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가 도와야 한다. 그 후에야 여호와와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강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으로 돌아가 너희 땅을 상속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분배 받았으니 ‘내 일은 끝났다’고 뒷짐 지고 있지 말고, 다른 형제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안식을 얻은 때까지 함께 나가 싸우고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

둥과 비난을 일삼으며 일하는 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들을 분열시키려 했습니

다. 또한 멀리서 구경만 하던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훼방자들과 방관자들은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결코 함께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고, 수수방관한 자에게는 하나님도 수수방관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훼방한 자에게는 하나님도 그의 앞길에 장애물을 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인격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임오며”(잠8:17).

저는 이번 부천체육관 집회가 묶인 문제를 해결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회에 참석하여 기도하면 그동안 묶였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일에 협력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적극적으로 돌아보실 것이 분명합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사울에 쫓겨 목숨이 경각에 달린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들이 타작해놓은 식량을 다 빼앗아 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치라고 말씀하셔서 블레셋 사

**중이도 네 귀를 들어야 바로고
순백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람을 치려고 하니 다윗의 부하들이 떨쩍 떨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남 도울 땀입니까? 우리 목숨도 위태로운 판에 누굴 돕습니까?”(삼상23:3). 들어보니 그 말도 맞는다 싶어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여쭙니 하나님은 가서 블레셋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고 빼앗겼던 가족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와 마음이 합했다”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부천체육관 집회에 지방에 있는 교회는 거리상 멀다고, 또 교회 재정이 어렵다고 나 몰라라 해도 안 됩니다. 내 형편과 여건이 조금 어렵더라도 다윗처럼 형제를 돕고 쫓겨야 할 것입니다.

잔치를 배설한 자는 자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는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눅14:21)고도 하였고, 그레도 빈자리가 있자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14:23)고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천체육관이 차고 넘쳐도록 다 함께 협력하고 전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대로 네 교회, 내 교회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 돕고 참여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도 십시일반(十匙一飯)이요, 일인불과이인지(一人不過二人智)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습니다. 작은 힘이라도 합한다면 부천체육관 집회는 분명히 성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님의 마음은 어떻게요?

15, 16일 양일간 부천체육관 집회가 있습니다. 이 집회는 인천교회 주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인천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집회를 위해 준비하고 전도하겠지요. 집회에 혹 서울교회 성도들 중에 ‘그건 인천교회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요? 물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젠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부모님 생신 잔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맡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하고 다른 형제들이 생신날 밤시간이나 패서 나타난다면 부모님 마음이 좋겠습니까? 생신 며칠 전부터 전화소문이라도 형제끼리 연락하며 음식을 무엇을 할 건지, 선물은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지 의논하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15,000원
(060)700-0688
(060)700-0633
(060)700-02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부활의 기쁨을 사랑으로 전하세요

처녀치마, 노루귀, 열레지, 현호색, 생강 나무, 복수초, 너도바람꽃이 무엇인지 아세요? 봄이 되면 들녘이나 산비탈에 봄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며 소박한 모습으로 피어나는 야생화의 이름입니다. 처녀치마는 바람 싹싹한 초봄에 낙엽이 수북이 쌓인 틈으로 연보라색의 실타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잎에 솜털이 난 모양이 노루의 귀를 닮아 불려진 노루귀는 계곡 바위틈에서 연분홍색 자태로 나타납니다. 이른 봄에 꽃대가 올라오면서 자주색 꽃 1개가 밑으로 숙이면서 피어나는 열레지는 꽃잎이 뒤로 확 젖혀져 생김새가 특이한 봄꽃의 선봉대입니다. 보랏빛 현호색, 노란 꽃망울로 단장한 생강나무와 복수초, 하얀 꽃을 입은 너도바람꽃 등은 도로변이나 야산의 산책로에서 소박하고 단아한 모습으로 따사로운 봄날에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봄에 피는 야생화는 춥고 긴 겨울을 견뎌내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며, 생명이 부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봄에 부활한 야생화는 우리에게 따사한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인간으로 하여금 분발하여 큰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행복의 원천을 제공합니다. 기쁨을 얻은 사람의 생활은 소중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는 삶의 활기, 관대함, 사랑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중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열매가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도 사랑이고,

가장 강한 것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한 요구를 하든지 한없이 약하게 되어 모든 것을 순순히 받아들여지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바릴 수 있는 강한 의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부터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악한 것을 십자가로 다 버리시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본성의 더럽고 악한 양심을 벗어버리고, 선하고 정결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도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서로 나누면 좋을까요? 첫째,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영화 벤허를 보면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벤허는 뼈에 사무친 원수를 죽이고 통쾌하게 복수를 하고자 복수의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거리를 헤매던 중, 옛날 자신이 노예선에 끌려갈 때 사막에서 물을 주었던 예수라는 젊은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벤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

린 예수와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병사들을 위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하고 기도하는 것을 듣고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못을 박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라고 생각하며 예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심에 감동을 받은 순간, 그때까지 자신이 쥐고 있던 복수의 칼이 스스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한센 병에 걸려 있던 벤허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병에서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내재되어있는 분노와 불평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셋째, 남을 배려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간디가 막 출발하려는 기차에 올라타는 순간 그의 신발 한 짝이 벗겨져 플랫폼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기차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발을 주을 수가 없자 그는 얼

른 나머지 신발 한 짝을 벗어 그 옆에 떨어뜨렸습니다. 이유를 묻는 한 승객의 질문에 간디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바닥에 떨어진 신발 한 짝을 주겠다고 상상해보십시오. 그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한 짝마저 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재력이 있는 사람은 재력으로, 봉사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봉사를 통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또 남을 잘 배려하는 재능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따스하고 화창한 부활의 계절인 이 봄에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야생화와 같은 소박한 사랑을 나누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관섭 장로
kslee@kmi.re.kr



::Healing in Music::

꿈의 오케스트라

2008년에 방영됐던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극중 인물들은 무의미한 일상을 보내다 우연치 않게 한 오케스트라에 들어가게 되면서 잃었던 자아를 되찾게 되고, 동일한 꿈을 향해 협력하며 달려가게 된다. 각각의 개성을 가진 인물들이 갈등과 화해를 거듭하며 하나의 오케스트라로 성장해가는 모습은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 지친 대중의 공감을 사기에 충분했다. 현실에도 이러한 꿈의 오케스트라가 존재한다. 총회장 목사님 덕분에 우리와도 친숙해진 나라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템아'(El Sistema)가 그것이다. 1975년, 경제학자이자 음악가인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José Antonio Abreu) 박사는 거리의 아이들을 범죄와 마약에서 구해내기 위해 음악교육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는 단순히 음악교육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한 사회통합을 꾀한 것으로, 소외계층의 청소년들에게 악기와 음악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오케스트라에서 함께 연주할 것을 제안하였다. 음악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은 아브레우 한 사람의 확신에 찬 아이디어로 시작된 엘 시스템아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지난 38년간 30만 명의 삶을 변화시켰다. 사회로부터 배척당할 위험에 처해있던 수많은 이들이 엘 시스템아를 거친 후, 사회 각처에 꼭 필요한 구성원으로서 역할하고 있고, 세계에서 주목하는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Gustavo Dudamel)을 필두로 많은 음악가들이 배출되고 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 그 이유는 오케스트라 자체 특징에 있다.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악기들이 모여 함께 연주하는 조직이다. 수많은 연주자들이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하나가 되어 지휘자를 중심으로 하모니(Harmony)를 이루어낸다. 오케스트라는 음악가 개개인의 집합을 넘어서 하나의 커다란 유기체가 되기 때문이다. 빈곤과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거리에 내몰렸던 베네수엘라의 아이들은 엘 시스템아에 의해 자기 악기를 갖게 되고, 함께 연주하며 성취감의 단맛을 알게 되고, 협동과 배려의 정신을 배우게 되며, 자신들이 거저 얻은 이 값진 자산들을 다시 나누는 선순환을 통해 가치 있는 미래를 꿈꾸게 된 것이다. 엘 시스템아를 통한 사회통합과 문화진흥의 성과는 커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이 놀랍도록 성공적인 시스템이 계속 전파되

고 있다.

최초 인해 정녕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영생을 거저 얻었다. 엘 시스템아에 길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아이들에게 손을 내민 것처럼, 예수님의 직접 케스팅으로 구원 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주님의 오케스트라에 발탁되었다.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면서 얻게 된 삶의 희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는 엘 시스템아의 아이들처럼, 우리는 보혈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언젠가 그 나라에 가는 날, 주님과 천군 천사들의 기쁨박수를 받는 박찬 순간을 꿈꾸며, 주께서 허락하신 꿈의 오케스트라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을 울리는 악기가 되리라 다짐해본다.

김슬아

gratiaseul@gmail.com

수화 통역 예배안내

매주 주일 3부 & 4부 예배
금요일
문의: 주축측 전도사
010-3256-0288



귀를 기울이세요

최근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모자라 칼부림, 방화,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가 이 문제를 새 정부의 최우선 '창조경제'의 주요 대상으로 꼽았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층간 소음 문제가 이전에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요즘 들어 이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일까요? 의학계에서는 요즘 화병(火病)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유발적인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회는 1986년에 화병을 한국 고유의 민속 증후군 중 하나라고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 화병은 다양한 신체적, 감정적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신경과민과 스트레스, 상대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속에서 계속 참고 억누르다가 그만 우발적인 행동으로까지 치닫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도 록 분노를 품지 말고 미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엡4:26-27)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화(火)를 계속 쌓아두면 미귀가 그것으로 불장난을 저지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날의 화는 말쑥과 기도, 상호 이해와 대화로 그날 다 풀여 버리고, 우리 속에 성령의 불과 그 뜨거운 열정만 계속 타오르게 합시다.

신재식 전도사

blessednio@naver.com



이길원 목사 부부와 함께

따갈로그어(Tagalog)에 올인하겠습니다

선교를 결심한 그는 14개월 전 필리핀 바기오에 들어갔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그 도시로 초청하여 집회를 할 수 있을까에 골몰하였다. 그러나 1년이 넘어가며 그가 부딪친 현실은 냉엄했다. 일단 언어가 장벽이 되어 그들 속에 들어가기 어려웠고, 둘째는 한국인 목회자들의 엄청난 핍박이었다. 함께 신학을 했던 동기들조차 그를 경원시하는 현실에 그는 몸도 마음도 지쳐갔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만나 집회를 강행해보기로 마음먹고 한국을 찾았다. 그러나 목사님의 확답을 들을 수는 없었다. 이길원 목사는 마지막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목사님이 오지 않으신다면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결국 그는 필리핀으로 돌아가 집을 썼다. 집이 될 것 같은 물품들은 지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그리고 그를 도왔던 주 집사에게 이삿짐을 선적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배는 뜰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바로 그러던 차에 목사님의 전화가 걸려왔다. "집회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나?" 목사님의 이 한마디는 그의 정신을 번쩍나게 했다. 이길원 목사를 필리핀에 보내줬던 그 하나님께서 그가 포기하려 하자 급히 목사님을 보내시는 것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나 하면, 원래 4월에 있을 멕시코

(Mexico) 집회가 전격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멕시코 집회를 준비하던 베레니체(Venice) 목사가 과테말라(Guatemala) 집회에 참석하면서 자기 교회와 자기 도시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복음화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6월에 더 큰 집회를 준비하겠다고 4월 집회의 취소를 부탁해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이길원 목사는 현지 목회자들을 모아 목사님의 집회영상을 보여주며 동감을 촉구하고 TV, 라디오 광고 등을 준비했다. 그런데 집회 날짜가 다가오면서 예상치 못한 거센 저항이 밀어닥쳤다. 이단이 온다고 400명의 한국 목회자들이 뿔뿔뿔 필리핀 현지 교회와 목회자들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그를 돕겠다던 50여 명의 필리핀 목회자들도 매수되어 일심으로 궤방하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잘 모이기도 않고, 서로 반목하기 일쑤인 한국 목회자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만 하나로 뭉쳐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다. 목회자 세미나는 취소되고 집회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목사님은 집회만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 없었다. 이번 집회를 위해 이길원 목사는 30년 지기인 황 집사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들은 목사님에 대

해 잘 알지도 못하는 타 교회 성도들일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온 성도들 중에는 목사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도 있었다. 집회 강사님을 대접하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에 그들은 십시일반으로 뜻을 모아 250kg이나 되는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다. 그리고 목사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목사님은 매일같이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마치 제자를 양육하듯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날이 갈수록 그들은 오히려 목사님의 열혈 팬이 되고 말았다. 주의 종을 대접하러온 그들에게 특별 은총의 시간이었던 셈이다. 또한 이길원 목사는 이번 집회를 통해 엄청난 경험을 하였으며 필리핀 선교에 뼈를 묻으려는 하나님의 뜻을 절감했고, 따갈로그어를 마스터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집안 벽마다 따갈로그어를 붙여놓고 공부하여 반드시 6개월 후, 목사님을 다시 만날 때는 따갈로그어를 유창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목사님은 너무 기뻐하시며 1년 치 수업료를 주시며 "무기 없는 전쟁은 질 수밖에 없다. 네가 이 나라를 복음화하려면 철저히 따갈로그어에 네 목숨을 바쳐야 한다. 나는 네가 1억 5천만을 끌어안는 선한 목자가 되길 원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며 그를 포용해주셨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원 목사가 이 일을 이룰 것을 믿는다.

이초석 목사 부천체육관집회

4월 15일(월), 16일(화) 저녁 8시

부천체육관 (송내역 북부역 출구 차량운행)

문의: 1600-0688, 032-763-9191

